

택시·렌터카 불편민원 속출 도 ‘경제 제재’ 카드… 초강수

지난해 불친절 등 1000건 이상 민원 접수
“과태료 부과하고 보조금 지원 제한할 것”

택시·렌터카 불편 민원이 속출하자 행정당국이 ‘경제 제재’ 카드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택시 불편 민원은 2019년 823건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428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1월~11월)에는 723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에는 부당요금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 173건, 승차거부 110건 등의 순이었다.

렌터카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90건의 불편 민원이 접수됐는데 자차보험(면책금) 36건, 수리비

과다 27건, 요금 불만 26건, 불공정 계약 11건 등이 주를 이뤘다.

민원이 속출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택시는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요금·운행경로 시비 등 사소한 분쟁 증가’, 렌터카는 ‘대여 시 약관 및 계약사항 설명 미흡에 따른 분쟁 증가’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과태료와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통해 민원 감소를 꾀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불친절·난폭운전(2회부터 과태료 10만원) ▷미터기 미사용·불정결(1회부터 과태료 10만원) ▷승차거부·부당요금·신용

카드 거부(1회 20만원·2회 40만원·3회 60만원) 등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6개월 이내 2회 이상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반복 휴업 차량에 대한 개선명령도 나눈다.

렌터카의 경우는 반복적인 법규 위반 시 셔틀버스 보조금 지원을 축소시킬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운송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고·개선명령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과태료 처분은 빠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고, 보조금 지원 제한은 올해 행정처분 실적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때아닌 겨울에 활짝 핀 **쑥부쟁이** 4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해안에 쑥부쟁이가 때 아니게 만개해 이곳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색다른 겨울정취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 제주기온 역대 가장 높았다

평균 17.2℃… 기상청 “1961년 관측 이래 최고 기록”

지난해 제주의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평균기온은 17.2℃(최저 14.2℃·최고 20.6℃)로 1961년 이후 가장 높았다. 1961년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평균기온을 합산해 산출하는 전체 평균기온을 집계하기 시작한 해다.

지점별로 보면 먼저 제주는 평균기온 17.5℃(최저 14.6℃·최고 21℃)로 192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성산과 고산 역시 각각 평균기온은 16.7℃(최저 13.3℃·최고 20.4℃), 17℃(최저 14.3℃·최고 20.3℃)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서귀포의 경우는 평균기온이 17.5℃(최저 14.7℃·최고 20.7℃)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제주기상청 관계자는 “고온 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5일 오전에는 제주 산지에는, 해안에는 낮부터 비 또는 눈이 내려 6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적설·강수량은 산지 5~20cm, 해안 5~30mm로 예상됐다.

송은범기자

“대중교통·자전거 이동체계 구축 절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교통 예산 전면적 전환 촉구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꽃자알사람들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제주도 교통 예산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이날 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2년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총 21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가 공표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제주의 온실가스 총 배출

량 484만t 중 수송 분야가 47%를 차지한다. 제주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무엇보다 수송 분야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행동은 “도로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정책과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등 이동체계를 구축하는 대안적인 교통 서비스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영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1월 넘기면 총파업”

교육공무직 임금타결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단 임금 교섭 재개와 타결안 제시를 촉구했다. 1월을 넘길 경우 신학기 총파업과 교육감선거 총파업으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학교비정규직 노사의 2021년 집단임금 교섭이 결국 해를 넘겼다. 이는 단지 노사 입장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교육감들의 무책임이 그 원인”이라면서 “1월까지도 넘긴다면 향후 노사 갈등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유례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고농축염수 해양생태계 훼손 우려

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1일 100t 바다로 배출
해조류 전문가 “백화현상 가속화 가능성 높아”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고농축염수를 배출하고 있어 해양생태계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용암해수센터는 용암해수 원수를 탈염후 기업에 공급하고 여기서 나오는 고농축 염수는 바다로 배출(1일 평균 100t)하고 있다.

고농축 염수는 바닷물 보다 3~4배 높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 장

기간 배출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도내 한 해조류 전문가는 “예전에 부산 해수담수화 시설에도 고농축 염수를 배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고농축 염수가 장기간 바다로 유입될 경우 백화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국 해양생태계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관계자는 “현재 소량이 방출되고 있어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금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가 도입되면 고농축 염수로 소금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용암해수는 1일 1000t 생산 기준으로 약 2만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해 있다. 바닷물이 화산 암반층에 의해 자연여과돼 육지 지하로 스며든 물로, 미네랄과 영양염류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유기물과 병원균이 거의 없는 제주만 특유의 지하수자원이다.

고대호기자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제주의 대표신문!

한라일보
ihalla.com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열독률·유료구독률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한국ABC협회

2021년도 일간신문 발행부수·유료부수 인증 제주 1위

“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결과 **열독률·종이신문 유료구독률 제주 1위**, 2021년도 **일간신문 발행부수·유료부수 제주 1위** ‘한라일보 인증’을 제주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신문, 칭찬하는 신문, 제주도민을 섬기는 한라일보의 기치로 독자와 함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

2021 한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선 화

부위원장 고광연 홍인숙 간 사 신승훈
위 원 강말순 강민숙 강창용 고석찬 고승화 김병수 김순보 김은미 김은정
김주경 문만석 박애순 안재민 오명찬 이병철 이정연 이정호 이종실